

## 만일참선결사회와 봉암사 결사의 비교

김광식\*

• 목 차 •

I. 서언

II. 규칙(만일참선결사회)과  
규약(봉암사 결사)에 나타난 이념의 비교

III. 육하원칙으로 본 비교

IV. 결어

---

\*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전 동국대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40집 (2023년 12월), pp.187-226.

## 한글요약

이 논고는 근대 한국불교의 고승으로 명망이 높은 백용성의 수행, 사상, 지성의 행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만일참선결사회(망월사, 통도사 내원암)와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뚜렷한 역사로 부각된 봉암사 결사를 비교한 글이다. 봉암사 결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나왔지만, 그에 반해 만일참선결사회는 연구가 부진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만일참선결사회의 역사적인 의의, 정체성, 계승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초점을 갖고 연구에 유의하였다. 첫째, 만일참선결사회의 규칙과 망월사 결사의 규약에 나타난 이념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결사의 내용 및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연후 이는 두 결사의 이념을 비교하였다. 둘째, 6하원칙으로 본 비교를 수행하고자 했다. 사실, 사건을 파악하는 개념인 6하원칙을 갖고 두 결사회를 분석하였다. 그 연후는 각 결사의 내용을 정체성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이런 분석을 한 후에는 만일참선결사회가 봉암사 결사에 끼친 영향 및 계승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필자는 그에 대한 단서로 백용성과 성철의 인연, 자운의 증언을 소개하였다. 이 점은 추후 더욱 심화된 연구가 요청된다.

이와 같이 수행한 필자의 이 글이 근현대 결사, 고승 연구, 봉암사 결사, 만일참선결사회, 백용성, 성철, 자운 등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주제어

만일참선결사회, 봉암사 결사, 망월사, 봉암사, 통도사 내원암, 백용성, 성철, 자운

## 1. 서언

백용성의 생애와 사상의 연구는 백용성의 유지를 계승하고 있는 (재)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산하의 연구 기관인 대각사상연구원이 1998년에 발족됨으로 본격화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5년간 백용성의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가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추후에는 구체적인 행적, 사상, 계승 등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요청된다.<sup>1)</sup>

이런 배경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그간 백용성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萬日參禪結社會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일참선결사회는 1925년 망월사에서 시작되었지만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되어 1927년까지 운영되었다. 이 결사회는 백용성의 수행, 사상, 지성 등이 노정된 역사이었다. 결사회에는 50여 명의 승려들이 백용성의 결사 정신에 동참하여 함께 수행하였다. 결사회에 동참한 대중에는 동산, 고암, 석우, 운봉, 인곡, 강고봉, 고송 등 한국 현대불교를 이끈 주역들이 있었다. 때문에 이 결사는 근대 불교사에서 큰 주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사운동사 차원에서의 연구는 미진하였다.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결사회의 개요를 정리하였다.<sup>2)</sup>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결사회의 불교사적인 의의 및 계승에 대한 문제를 들추어 보려고 한다. 이것이 이 글의 초점이다.

한편 필자가 백용성의 만일참선결사회를 다루고자 하는 연유는 일부 연구자들이 결사회의 성격 및 계승을 성철·창담·자운·보문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1947~1950)와 연계하여 설명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호성은 「봉암사 결사의 윤리적 성격과 그 정신」(2008)에서 성철의 봉암사 결사는 백용성의 결사 이념

1) 김광식,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16, 2011.

2) 김광식, 「백용성 만일참선결사회의 전개와 성격」, 『대각사상』 27, 2017.

을 잇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격은 다르다고 하였다.<sup>3)</sup> 덕산(원두)은 「용성문도와 불교정화의 이념」(2008)에서 백용성 결사의 독자성에 주목하고 성철은 백용성의 불교관과 승단관을 봉암사의 일상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고 평가했다.<sup>4)</sup> 마성은 「백용성의 승단정화 이념과 활동」(2008)에서 봉암사 결사는 만일참선결사회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sup>5)</sup> 이렇듯이 일부 연구자들이 백용성의 결사회와 성철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를 연결하여 성격 및 계승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지적은 시론에 그쳤고, 그 지적에 대한 불교학계에서의 반응은 부재하였다. 필자도 그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최근(2023.2) 문광은 봉암사결사는 용성의 만일결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자운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소개하였다.<sup>6)</sup>

그래서 이 글에서 필자는 만일참선결사회와 봉암사 결사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만일참선결사회의 정체성을 더욱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일참선결사회의 영향, 계승의식과 연관이 있는 봉암사 결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도출시키고자 한다.

- 
- 3) 김호성, 「봉암사 결사의 윤리적 성격과 그 정신」, 『봉암사결사와 한국 현대 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p.132.  
 4) 덕산, 「용성문도와 불교정화의 이념」,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649.  
 5) 마성, 「백용성의 승단정화 이념과 활동」,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560.  
 6) 2023년 2월 5일, 보문사(서울) 동안거 해제 법회의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필자는 그를 칭취하였다. 문광은 그 근거를 김택근, 『용성 평전』, 조계종출판사, 2019, p.356의 혜종 발언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운스님이 “처음 납자들이 결사를 계획하며 우리도 망월사에서처럼 해보자”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불교신문』 2023.2.21, p.19, 「이것이 한국의 간화선이다 ③ ; 용성선사의 선사상」.

## II. 규칙(만일참선결사회)과 규약(봉암사 결사)에 나타난 이념의 비교

한국 근대불교에서의 ‘결사’는 승단의 구성원들이 성찰 및 개혁을 기하기 위한 수행 공동체이다.<sup>7)</sup> 그러나 결사에 대한 이념, 성격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부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성은 20년간의 결사 연구를 정리하여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씨아이알, 2016)을 펴냈다. 그런데 김호성의 그 책에 수록된 논고에는 봉암사 결사는 포함되어 있지만, 백용성의 만일참선결사회에 대한 개별 논문은 없었다.<sup>8)</sup>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승단 및 불교학계의 구성원들은 백용성의 만일참선결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런 전제하에 필자는 만일참선결사회의 이념을 봉암사 결사와 비교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사회의 이념을 보여주는 개칙·규칙과 봉암사 결사의 공주규약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만일결사회의의 개괄적인 이념을 알 수 있는 개칙을 제시한다.<sup>9)</sup>

### 概則

- 一. 本社의 目的은 活句參禪 見性成佛 廣度衆生으로 함
- 一. 萬日을 十期로 分定하여 一期를 三年式 定하고 右 期間 內는 他處에 遊方 出入을 不得함
- 一. 本社에 參榜코자 하는 者는 志願書에 戶籍, 僧籍의 謄本을 添付提 出하며 衣鉢을 携帶할 事
- 一. 前項을 具備치 않거나 梵行이 不潔하거나 精進에 懶怠하거나 諸方에서 乖角으로 認하는 者는 入榜을 不許함
- 一. 私財 三石以上을 所持한 者가 禪衆에 入榜코자 하는 時에는 入榜을 不許하되 但 禪糧을 入하는 者는 此限에 不在

7) 김호성, 「결사의 근대적 전개양상」, 『보조사상』 8, 1995, p.142.

8) 김호성은 백용성 만일참선결사회를 봉암사 결사와 비교하여 서술은 하였다. 그러나 개별 연구는 하지 않았다.

9) 『불교』 14호(1925.8), p.45.

- 禪衆은 三十名으로 定함
- 半月마다 梵網經 四分律을 說하고 每月一日 上堂하여 宗乘을 擧揚함
- 陰 十月一日부터 十月十日까지 來參하되 右 期日 以前은 禪糧의 供이 無함
- 道場은 京畿道 楊州郡 柴屯面 道峰山 望月寺
- 右 規則에 勘當치 못할 者는 當初에 不參하심을 敬要
- 本社의 細則은 別로히 制定함

위의 개칙은 만일참선결사회의 목적, 운영, 주의사항, 수행의 개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칙을 통하여 결사회의 지향, 노선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온 내용에서 결사회의 성격과 결사회를 주관한 백용성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사회의 목적은 活句參禪, 見性成佛, 廣度衆生이라고 표방되었다. 즉 활구참선을 통하여 견성성불을 이루고, 광도중생을 하자는 것이었다. 수행 기간은 萬日로 정하되, 1기를 3년으로 하여 10기로 구분하였다. 결사회에 참가할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전 조건도 나온다. 즉 지원서와 호적 및 승적 등본의 제출, 禪糧 이외의 사적 재산의 지참 불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수행은 참선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범망경』과 『사분율』을 설한다는 것에서 보살계와 비구계의 계율 준수를 표방하였다.<sup>10)</sup> 또한 禪衆은 30명으로 정하였음에서 소수 정예주의를 지향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사 장소를 망월사로 알려면서 이와 같은 규칙을 감당하지 못할 수좌들은 참가하지 말라는 당부하였다. 이런 개칙을 통하여 백용성은 소수 정예의 수좌들이 치열한 선수행을 하면서, 계율도 준수하는 수행 공동체를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사회의 성격은 規則과 主意事項에서<sup>11)</sup>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칙은 운영, 성격, 지향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결사회의 이념을 보여주기에 그 전모를 제시한다.

10) 지원서에도 ‘規律’ 준수의 내용이 나온다. 위의 자료와 같음.

11) 『불교』 15호, 1925.9, pp.42-45.

精修別傳禪宗活句參禪萬日結社會 規則

第一條 本社の 名稱은 精修別傳禪宗活句參禪萬日結社會라하여 位置를 京畿道 楊州郡 道峰山 望月寺에 定함

第二條 本社の 主旨는 活句의 參禪으로 見性成佛하여 廣度衆生함을 目的함

第三條 本사에 結社는 萬日로 定하되 此를 十期로 分하여 一期를 三個月으로 制定함

第四條 本社の 主旨를 充實히 하기 爲하여

1. 每月初 一日에는 宗乘을 舉揚함
2. 半月마다 大小乘律을 說함
3. 每月 二十日에는 看話正路를 開示함
4. 午後不食을 斷行함
5. 平時에는 默言을 斷行함

但 以上 4, 5項은 外護法班員에게는 此限에 不在함

6. 外護法班員 以外の 禪衆은 期內에 洞口不出을 斷行함.

但 父母 師長의 重病 又は 死亡 時에 限하여 宗主和尚의 許諾이 有할 時는 此限에 不在함

7. 禪衆은 社中 一切 事에 干涉을 不得함

但 宗主和尚의 許諾이 有할 時는 此限에 不在함

第五條 本사에 參榜하는 禪師의 資格은 左와 如함

1. 梵網經 四分律을 特히 遵守하려고 決心한 者
  2. 梵行이 淸淨한 者로 精進에 勤勞하는 者
  3. 僧籍, 戶籍과 衣鉢을 갖추어 携帶한 者
  4. 滿 二十歲 以上으로 五十歲까지의 氣力이 健康한 者
- 但 氣力이 特히 卓越한 者의게는 此限에 不在함

第六條 宗主和尚은 佛祖의 正法을 舉揚하며 社內의 一切事를 指揮하고 首座和尚은 宗主和尚을 補佐하여 社中 一切 事務를 總理하며 宗主和尚이 出他할 時는 此를 代理함

第七條 本社の 目的을 達기 爲하여 內護法班과 外護法班을 置하고 左와 如히 任員을 配定하여 其 任務를 分掌함

內護法班

宗主和尚의 指揮를 承하여 禪室內의 一切事를 掌理함

- 一, 立繩 1人 禪衆을 統管함
- 二, 維那 1人 内外護法班員의 件過와 寺中 一切執務를 查察함
- 三, 侍佛 1人 法要를 執行함
- 四, 乘法 1人 佛供及 施食을 擔任함
- 五, 獻食 1人 每日 獻食을 擔任함
- 六, 司察 1人 五日間式 輪番하여 默言規則을 嚴히 遵守함
- 七, 時警 1人 每時에 高聲으로 時를 報하여 禪衆의 道心을 堅固케 함을 擔任함
- 八, 侍者 1人 宗主和尚 室에 侍奉함
- 九, 看病 1人 禪衆中에서 病이 發生할 時는 此를 看護함
- 十, 知客 1人 來客의 接待와 客室規則을 嚴守하여 開起寢과 入放禪規를 大房과 同樣으로 遵行함
- 十一, 淨桶 2人 每三 八日에 大衆浴水를 準備함
- 十二, 淨頭 2人 每三六日에 大衆의 洗濯水를 準備함
- 十三, 剃頭 2人 每月 初三日에 大衆을 剃髮함
- 十四, 磨糊 1人 大衆 所用의 糊造를 擔任함
- 十五, 鐘頭 1人 法會 時에 一般 準備를 擔任함
- 十六, 奉茶 1人 每日 一回의 大衆 飲茶를 擔任함

#### 外護法班

宗主和尚의 指揮를 承하여 社務에 一切事를 掌理함

- 一, 院主 1人 社務에 一切事를 掌理함
- 二, 別座 1人 院主를 補佐하여 社務에 從事함
- 三, 米監 1人 大衆을 詳察하여 供米支給을 擔任함
- 四, 書記 1人 社中一切 文簿를 掌理함
- 五, 園頭 1人 菜田의 耕種培養과 山菜의 採取를 擔任함
- 六, 菜供 1人 饌需料理를 擔任함
- 七, 供司 1人 食料料理를 擔任함
- 八, 負木 2人 柴木供給을 擔任함

第八條 結制中에 戒律 又は 規則을 犯하는 者가 有할 時는 宗主和尚이 此를 輕重에 依하여 處罰함

但 宗主和尚의 命規를 不從할 時는 大衆이 協議하여 山門 外로 逐出함

第九條 此 規則中 未備한 點이 有할 時는 宗主和尚이 臨時로 規定하여 發表함

지금부터는 9조로 나뉘어진 규칙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9조의 내용은 목적, 운영, 참가자(禪師) 자격, 종주, 소임, 기타사항 등이다. 우선 목적(1, 2조)에서는 명칭, 결사장소가 나온다. 명칭은 ‘精修別傳禪宗活句參禪萬日結社會’라 하였다. 여기에서 오로지 활구참선을 萬日 동안 지속하겠다는 맹서한 결사회임을 알 수 있다. 결사 장소는 망월사로 정하였다. 결사의 운영(3, 4조)은 3년을 1기로 하여 10기의 30년으로 정하였고, 참선 수행을 근간으로 하였다. 초하루와 20일에 宗乘의 거양과 看話正路를 설법하겠다는 것에서 참선(간화선)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하였다. 그러면서 수행자가 지킬 행동으로는 오후불식, 평시묵언, 동구불출, 사중 일 간섭의 배제 등을 내세운 것에서 치열한 결사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참가자 자격(5조)에서는 『범망경』·『사분율』의 준수와 범행이 청정한 자로 한정시켰다. 계율 수호의 정신이 명쾌하게 드러난다. 종주화상 내용(6조)에서는 宗主는 불조정맥을 수호하고 결사회를 지휘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주를 보좌할 소임자로 首座를 정하였다.

다음으로 결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內護法班과 外護法班의 구성과 내용(7조)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주의 지휘를 받아 선원 내부의 모든 일을 분담하는 것이다. 내호법반의 소임은 立繩, 維那, 侍佛, 乘法, 獻食, 司察, 時警, 看病, 知客, 淨桶, 淨頭, 剃頭, 磨糊, 鐘頭, 奉茶 등이다. 이 중에서 여타 청규에서 나오지 않는 侍佛, 時警이 주목된다. 시불은 法要를 執行하고, 시경은 每時에 高聲으로 때를 알려서 수행자의 道心을 다부지게 하는 담당자이다. 이는 결사회가 범요 의식도 철저히 지키고, 참가 수행자를 수행에 매진케 하려는 산물로 이해된다. 외호법반의 소임은 院主, 別座, 米監, 書記, 園頭, 菜供, 供司, 負木 등인데 이는 다른 청규와 유사하다. 기타사항(8, 9조)은 결사회에서 계율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대비이다. 규칙을 준수치 않을 경우, 종주의 처벌에 따르고 미비한 규칙은 종주가

임시로 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처럼 결사회는 철저하고, 엄격한 결사 수행의 원칙(개칙, 규칙)을 정했다. 이제부터는 주의사항을 제시한다.<sup>12)</sup> 규칙보다 더욱더 세부적인 내용이다.

1. 禪衆은 切心工夫하여 見性通宗으로 最急務라 自認한 者로 一切 公議와 一切 寺中事에 干涉을 不得함
2. 民籍上에 妻子가 有한 者로 或 妻子가 來往하든지 或 書物이 頻煩하게 往來하여 禪衆의 道心을 紊亂게 함을 不得함
3. 本結社에 入榜코자 하는 者는 請願書에 戶籍과 僧籍謄本을 添付하여 陰 八月 末日 以內로 提出하되 入榜承諾書는 陰 九月 十日에 發送함
4. 入榜 承諾書를 受得한 者는 自 十月 一日로 至 十月 十日 以內에 道峰山 望月寺로 參集함
5. 入榜 承諾書를 受得한 者라도 衣鉢坐具 等を 携帶하지 않는 者는 入榜을 不得함
6. 結制 中에 梵行이 不潔하거나 精進에 懈怠하거나 社中 規則을 遵守치 않거나 諸方에서 乖角으로 共認하는 者에게는 大衆과 同居함을 不得함
7. 私財 三石 以上을 所有한 者로 禪糧을 納入하는 者는 入榜을 許하되, 此에 不應하는 者는 入榜을 不許함
8. 殺生, 偷盜, 邪淫, 妄語, 綺語, 兩舌, 惡口, 貪, 瞋, 邪見하는 者와 飲酒食肉이 無妨般若라 하는 者는 同居함을 不得함
9. 半月마다 大小乘律을 說할 時에 此를 或 誹謗하는 者는 同居함을 不得함
10. 說法時에 問法決擇을 不許함  
但 所疑 處가 有할 時는 下堂 後에 入方丈하여 決擇함이 可함
11. 坐禪時에 無故히 不參하는 者와 規則을 紊亂케하여 大衆을 煩動케 하는 者에게 三諫하여도 不從하는 者는 同居를 不得함
12. 病者 以外에는 佛供時와 禮佛時에 必히 參席함
13. 師尊과 老宿에게 不敬하며, 惡性으로 凌辱하여 大衆과 和合치 못하는 者는

---

12) 백용성이 발표할 때에는 연번이 없으나, 필자가 편의상 번호를 부여하였다.

同居함을 不得함

14. 定日以外에 沐浴 洗濯 剃髮함을 不得함
15. 粥時에는 二種饌이오 飯時에는 三種饌 以上을 超過함을 不得하되 檀越 供이 有할 時와 十齋日에는 此限에 不在함
16. 臺上禪院에서는 長時默言하되 每月 四回の 說法 日에는 少許에 言語를 通하나 高聲 大言과 雜談을 不許함  
但 緊要한 事가 有할 時에는 言語者 間에 出外通情하되 十五分 以上을 超過치 못함
17. 雖 俗人이라도 五辛菜와 酒肉을 此 道場內에 携來하지 못함
18. 檀越이 衣服을 大衆에게 提供코져할 時에는 維那가 禪衆에게 衣服 有無를 詳細히 調査하여 分給함  
但 偏信으로 別請施給코자할 時는 衣服을 受取하여 留置하였다가 檀越 去後 三日에 大衆中 衣服이 無한 比丘에게 施給함

京城府 鳳巖洞 二番地

活句參禪萬日結社會 臨時 事務所 發表

위의 18개 주의사항에서는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항목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주의사항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참가자 자격을 제시했다. 참가자는 참선정진을 하되 깨달음을 급무로 인식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체 公儀 및 寺中の 일에 관여치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칙 미행자, 계율 파괴자, 대처승, 十惡을 행한 자, 제방에서 괴각으로 소문난 자, 飲酒食肉이 無妨般若라고 인식을 하는 자는 참가자에서 배제하였다.

다음 둘째로는 참가자의 수행 자세를 거론했다. 좌선 및 율장 강의(포살)에 반드시 참가, 종주에 대한 신뢰도 부연하였다. 종주의 설법시에 問法決擇의 곤란을 지적하였다. 이는 종주에 대한 신뢰를 당부한 것이다. 선지식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참선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 질서, 예의를 강조했다. 다른 청규에서 없는 것으로 불공 및 예불에 수좌들도 반드시 참석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대중 화합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개칙, 규칙, 주의사항에서 나온 내용 및 성격을 다음과 같이 필자가 개괄적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표 1> 만일참선결사회의 개요

내 용	성 격
목적 : 活句參禪, 見性成佛, 廣度衆生	간화선, 대승불교
기간 : 萬日, 1기는 3년	치열한 수행
인원 : 30명	소수 정예, 인재양성
참가자 자격 : 참선, 깨달음 결심자 <sup>13)</sup> 계율 준수자 화합 실천자	참선으로 견성을 각오 계율준수 결심 선배 · 대중, 예의 강조
참가자 자세 : 午後不食, 平時默言, 洞口不出	치열한 수행
참가자 역할 : 內護班, 外護班	소임 철저, 평등 정신
수행의 개요 : 공동 참선 선학 강의 - 매일 초하루, 宗乘 舉揚 - 매일 20일, 看話正路 開始 울장 강의, 布薩(半月, 大小乘律)	禪律 兼行 禪教 일치 三學(戒定慧) 수행  참회
결사 특징 : 계율 강조 飲酒肉食이 無妨般若라는 인식, 거부 宗主에 대한 신뢰 佛供 · 禮佛, 필히 참석 수행 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철저한 수행공동체 계율 강조 결사체 존중, 유지 전통 존중 현실 극복, 의지

위에서 필자가 분석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백용성의 만일참선결사회

13) 결사 선전문에서는 그를 決定心, 奮發心, 大精進心으로 표현했다. 『불교』 14호, p.45.

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엄격한 규칙을<sup>14)</sup> 내세운 결사이었다. 지금까지 이 결사회는 백용성의 회고에 나온 ‘禪律 併運’을<sup>15)</sup> 주목하여, 선과 율을 겸행하는 결사로만 이해하였다. 필자는 이 결사회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목하려고 한다.

첫째, 이 결사회는 ‘禪律 兼行(併運)’의 수행이념을 갖고 있었다. 최근 김호성은 ‘선율병운’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 결사는 선이 중심이라고 보았다.<sup>16)</sup> 그러나 필자는 백용성의 회고 그대로 ‘禪律 兼行’이 관철되었던 결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물론 활구참선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그 이후의 증생교화로 이어지는 대승불교의 철저한 실천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결사회의 규칙, 주의사항 등에서 보여지는 청규, 방략, 노선은 율장의 정신이 매우 강조되었다. 더욱이 1920년대 중반 불교계의 계율정신의 후퇴, 전통불교 몰락이라는 점을 유의하면 전통회복이라는 목적이 구현되기를 목적하였음이 엿보인다. 전통회복은 율장 정신의 실천에서 찾으려고 한 것을 볼 때 선율겸행으로 보아야 한다.<sup>18)</sup>

14) 백용성은 그를 ‘立規 甚嚴’이라 하였다. 백용성, 「만일참선결사창립기」, 『용성선사 어록』 권하, 삼강역회, 1941, p.25.

15) 백용성, 「만일참선결사창립기」, 『용성선사 어록』 권하, 삼강역회, 1941, p.25.

16) 김호성은 백용성의 결사는 ‘선율병운’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격에서는 선수행이 중심이고, 율은 선수행을 위한 보조적인 방략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필자는 율장 정신에 대한 강조는 선수행과 대등한 것으로 본다. 김호성, 「봉암사결사의 윤리적 성격과 그 정신」,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p.132.

17) 백용성은 결사회가 종료된 후 5년 후인 『불교』 93호(1932.3)에 기고한 「중앙행정의 희망」에서도 ‘禪律을 兼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18) 학담, 「용성진중조사의 원돈율사상과 선율겸행의 선풍」, 『대각사상』 10, 2007. p.393, p.403. 학담은 백용성의 사상적 정체성이 선율겸행이라고 강조했다.

덕산, 「용성문도와 불교정화의 이념」,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p.635. 선종 가풍에 입각한 결사이지만, 계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둘째, 이 결사회는 철저하게 준비, 입안된 결사라는 것이다. 결사회의 개칙, 규칙, 주의사항 등에서 관철된 것은 ‘계율’이다. 이는 결사회의 규칙(계율)이 후퇴하면 결사회의 목적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인식이다.

셋째, 이 결사회는 화합의 유지, 전통의 복구가 매우 강조되었다. 화합을 깨는 여러 요인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종주에 대한 신뢰, 불공 및 예불의 참가를 강조했다. 이는 불교, 승단, 선원에서 전통 및 관행을 회복하려는 의식이다. 이는 곧 전통 지향의 수행 결사체이었음을 뜻한다.

지금껏 백용성이 입안, 추진한 만일결사회의 개요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런 내용을 유의하면서 봉암사 결사에 대해 살펴 보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봉암사 결사는 해방공간(1947~1950), 봉암사에서 성철을 비롯한 일단의 수좌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수행 결사체이었다.<sup>19)</sup> 우선 여기에서는 그 결사의 共住規約을<sup>20)</sup> 제시하고, 그 규약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겠다.

1. 森嚴한 佛戒와 崇高한 祖訓을 勤修力行하여 究竟大果의 圓滿 速成을 期함
2. 如何한 思想과 制度를 莫論하고 佛祖 教則 以外的 各自 私見은 絶對 排除함
3. 日常 需供은 自主自治의 標幟下에 運水 搬柴 種田 托鉢 등 如何한 苦役

는 점에서 독자성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9) 김광식,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_\_\_\_\_, 「봉암사 결사의 재조명」,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20) 이 규약의 원문을 제시하였다. 원 규약에는 일련번호가 없지만 서술의 편의상 번호를 부여하였다. 지금껏 공주규약의 번역본, 해설본, 축약본 등 다양한 내용이 알려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규약 내용의 오류가 많았다. 그리고 규약의 기획, 공표, 활용은 성철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는 수궁하지만 자운문도는 자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규약의 원본은 해인사의 백련암에 보관되어 왔다.

도 不辭함

4. 作人の 稅租와 檀徒의 特託에 依한 生計는 此를 斷然 清算함
5. 壇信의 佛前 獻供은 齋來의 現品과 至誠의 拜禮에 止함
6. 大小 二便 普請 及 就寢 時를 除하고는 恒常 五條 直襪을 着用함
7. 出院 遊方의 際는 戴笠 振錫하고 必히 團體를 要함
8. 袈裟는 麻綿에 限하고 此를 壞色함
9. 鉢盂는 瓦鉢 以外의 使用을 禁함
10. 日 一次 楞嚴大呪을 課誦함
11. 每日 二時間 以上의 勞務에 就함
12. 黑月 白月 布薩大戒를 講誦함
13. 佛前 進供은 過午를 不得하며 朝食은 粥으로 定함
14. 座次는 戒臘에 依함
15. 堂內는 座必面壁하여 互相 雜談을 嚴禁함
16. 定刻 以外는 睡臥를 不許함
17. 諸般 物資 所當은 各自 辦備함
18. 餘外의 各則은 清規 及 大小 律制에 準함  
右記 條章의 實踐躬行을 拒否하는 者는 連單共住를 不得함

이 공주규약은 불조 교법을 복구시키려는 원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 내용을 대별하여 그 성격을 살펴 보겠다.<sup>21)</sup>

첫째, 부처님 戒法, 숭고한 祖師의 가르침, 佛祖의 教則을 따르겠다는 것은 이 결사의 사상을 말한다.(1, 2항) 이는 근본불교의 지향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개항이래 일제의 식민지 불교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불교의 근본을 되찾겠다는 개혁 지향을 뜻한다.

둘째, 자급자족의 원칙, 苦役 불사, 소작인의 세조 및 신도의 특별 보시 거부 등은 이 결사의 추진 방침을 대변한다.(3, 4, 5항) 이는 결사를 수좌들 자신의 힘으로 전개하겠다는 강렬한 의사 표시이다. 달리 말

21) 이 내용은 줄고,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p.59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하면 결사의 자주성을 의미한다.

셋째, 오조가사와 보조장삼의 항상 착용, 삿갓과 석장 사용, 괴색가사의 원칙, 목발우 불사용 등은 불법에 의거한 생활 개혁을 고려한 것이다.(6, 7, 8, 9, 17항) 불조 교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행에 필요한 의상과 물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이다.

넷째, 능엄주 암송, 규칙적인 노동, 정규적인 포살, 공양의 평등 등은 결사를 전개하는 일상적인 수행 생활의 기본 자세를 정한 것이다.(10, 11, 12, 13항) 요컨대 일상 생활에서부터 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례의 재정비를 말한다.

다섯째, 조속한 깨달음의 성취, 계납 강조, 선방의 질서 강조, 수행 자세 정비 등은 철저한 참선 수행을 의미한다.(1, 14, 15, 16, 18항) 승풍과 선풍의 회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승풍과 선풍의 타락은 식민지 불교에서 만연되었기에 여기에서 그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상으로 공주규약에 나타난 내용을 대별하여 살펴보았다.<sup>22)</sup> 당시 참가 대중은 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공주규약의 이행을 통한 철저한 수행을 다짐하고, 실천하였다. 그러면 이런 분석에 나타난 봉암사 결사의 성격을 도출하겠다.

---

22) 이 규약에 대해서 김호성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분류하였기에, 참고적으로 제시한다. 김호성, 「봉암사결사의 윤리적 성격과 그 정신」,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p.1



농후한 결사이었다. 부연하자면 계율 준수, 자급자족, 율장과 어긋난 생활의 개혁이 강조된 계율 회복의 결사이었다. 이런 성격은 성철이 말한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고 한 발언이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이제부터는 필자가 본 결사의 성격을 제시하겠다.<sup>25)</sup>

첫째, 결사의 추진에는 교단 모순(법, 율 파괴)을 극복하려는 수좌들의 투철한 현실인식이 있었다. 결사가 태동하기 이전의 불교계 현실 즉 佛祖 教法이 파괴된 상황을 극복하려는 수좌들의 현실인식이 결사 태동의 본질이었다. 이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 보겠다는 의식의 구현이었다. 계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것도 이런 노선과 연결된다.

둘째, 결사의 내용은 공주규약으로 요약되었는데, 이는 결사 실천에 대한 원칙성과 규율성이 뚜렷함을 말해 준다. 이는 공주규약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정신을 의미한다.

셋째, 봉암사 생활은 청정한 수행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일제 식민지 불교를 거치면서 나타난 원용살림 파탄, 승풍의 타락을 극복하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승려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는 생활을 자급자족하고, 갖은 노동을 하고, 탁발을 통해 최소한 생존을 지키겠다는 의사이다.

넷째, 수행의 중심은 참선이었다. 결사에 동참한 승려 대부분이 수좌였기에 선종 중심이었음은 당연하였다. 특히 간화선 위주의 수행 풍토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저변에는 청규와 율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즉 편협한 선 수행이 아니었다. 수좌들은 윤력, 나무하기, 천도재, 탁발 등의 사찰의 모든 일에 동참하였다. 요컨대 원용적인 선농불교의 수행이었다.

다섯째, 봉암사 생활은 일상 의례에서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했다. 봉암사에서 실행된 것은 불교교법에 근거하면서도 승풍을 진작시킨 것이

25) 이 내용은 김광식, 「봉암사 결사의 재조명」,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pp.45-47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었다. 의식주의 개혁, 예불 의례의 개혁, 포살 시행, 공양물의 평등 분배, 승려에게 삼배 등은 그 사례이었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봉암사 결사는 근본적, 개혁적인 계율결사이었다. 그러나 그 이념에는 참선 수행, 계율 회복, 일상 의례의 개혁 등 자주적인 수행, 계율 준수에 대한 지향이 강렬하였다. 그러면 위에서 살핀 만일참선결사회와 봉암사 결사를 이념에 유의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표 3> 결사 이념의 비교

	만일참선결사회	봉암사 결사
정체성	대승불교(사부대중)	근본불교(승려)
성격	禪律 兼行	계율 결사
기준	율장 : 규칙	佛祖 교칙, 청규, 율장 : 규약
수행	참선불교	선농불교
노선	개신 전통 화합	생활, 의례 개혁 혁명적 자주적

이와 같이 필자는 두 결사를 비교하여 보았다. 필자의 비교, 주장이 너무 과감하여 생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사의 이념에 나타난 것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비교한 것이다. 이런 비교를 통해 두 결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Ⅲ. 육하원칙으로 본 비교

여기에서는 전장에서 살핀 규칙과 규약의 내용 및 비교를 유의하면서 실제 결사 현장에서 전개된 내용을 살핀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비

교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나 두 결사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두 결사의 同異 및 계승에 대한 것도 유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결사의 현장, 전개の内容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필자가 예전 글에서 살핀 내용을 도출, 활용하여 그 핵심만을 서술하겠다.

## 1. 언제 : 기간

만일참선결사회와 봉암사 결사는 언제 추진된 결사이었는가? 즉 결사 기간의 문제이다. 만일결사회는 1925년 10월부터 1927년 8월까지 전개되었다. 약 2년이였다. 이렇듯이 만일(30년)을 기약하고 출발하였지만 불과 2년 만에 도중하차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수행처의 불안정, 참가 수행자의 나태를 지목할 수 있다. 그러면 봉암사 결사는 어떠하였는가? 봉암사 결사는 1947년 10월에 시작되어, 1950년 3월에 퇴진하였다. 즉 2년 반 만에 퇴진하였다. 그 연유는 봉암사 인근에서의 빨치산의 출몰로 인한 수행 환경의 불안정이었다. 이런 현실을 유의할 때에 수행처의 안정, 환경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2. 어디에서 : 장소

결사의 장소에 대해서 살핀다. 만일참선결사회는 도봉산 중턱에 위치한 망월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망월사가 위치한 도봉산의 나무를 연료로 채취하지 못하게 하였기에 1926년 5월에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하였다. 백용성이 망월사를 결사처로 정한 것은 그가 결사 이전에 망월사에서 1921년 겨울부터 참선 정진을 한 연고에서 나왔다.<sup>26)</sup> 이는 망월사의 주지측과 결사회의 계획을 상의할 수 있었고, 백용성이 망월

26) 백용성은 1921년 5월 5일, 출옥하였다. 그래서 그해 동안거부터 망월사 선원에서 정진을 하였다고 보았다.

사 선원의 종주로 7년간(1921~1927) 있었던 점이 고려된 것이라 본다.<sup>27)</sup> 그리고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한 것은 내원암에 선원이 운영되었던 것과 통도사 선승인 경봉과의 인연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제는 봉암사 결사의 장소가 봉암사에서 선정된 것에 대해 살핀다. 봉암사로 결사 장소를 정한 것은 결사 기획자인 청담이 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봉암사에서 일단 수좌들과 함께 참선 정진을 한 계기가 작용했다. 봉암사가 수좌들이 살기에 편안하다는 청담의 판단을 성철이 수용한 것이다. 물론 봉암사는 역사적인 선 도량이었던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만일결사회와 봉암사 결사의 장소가 망월사, 내원암, 봉암사로 선정된 연유에는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세 사찰이 모두 선원이 있었던 곳이었다. 즉 선원의 역사성이 고려되었다. 둘째는 세 사찰에 결사 주도자들의 인연이 작용하였다. 이런 연고가 자연스러웠기에 결사 장소가 되었다. 셋째는 결사를 추진한 사찰이 모두 지방의 오지에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참선 결사 장소는 한적하고, 오지의 사찰에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결사 사찰이 지방의 오지라는 점은 중앙 및 교단과는 별개의 장소에서 전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사의 자주성, 독자성을 의미한다.

### 3. 누가 : 결사의 주체, 참여자

결사에 참가한 인물들의 문제를 다룬다. 즉 결사의 기획, 동참, 이탈자 등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만일참선결사회의 참가자를 거론한다. 만일참선결사회의 주동, 기획자는 백용성 1인이었다. 현전하는 자료에 의

27) 『도봉산 望月寺誌』, 1934, pp.33-35, 「수선사 방함록」

『백용성대종사 총서』 7권(신발굴자료), 대각회, 2016, pp.572-573.

1920년대 전반기의 종주는 백용성, 주지는 安寶光, 화주는 金松月이었다.

거하면 백용성이 여타 인물과 상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물론 주변의 상좌, 도반과 상의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전무하다. 때문에 만일참선결사회는 백용성의 단독적인 고뇌, 결단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그러면 동참자는 어떠하였는가? 그 참가 대수는 30명만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50여 명으로 전한다. 50여명의 성향은 수좌가 30여명, 백용성의 시자 및 조력자 등이 20여 명이었다. 특이한 것은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부목, 산감이 포함된 것이다. 이들은 외호반에 편성된 대중으로 보이지만, 주목할 내용이다. 그러나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된 후에는 대중이 25명 정도로 축소되었다. 수좌가 15명 내외이고, 외호자는 10명 내외이었다.<sup>28)</sup>

이제는 봉암사 결사의 대중에 대해 살핀다. 봉암사 결사의 기획은 성철과 청담이 담당하였고 결사 주동자는 성철, 청담, 자운, 우봉, 보문이었다.<sup>29)</sup> 성철과 청담은 일제 말기 대승사에서부터 공동수행, 결사를 상의하였다. 그리고 결사 참여자는 40명에 달하였다. 그중 비구승은 30여명, 비구니가 10여 명이었다.<sup>30)</sup>

이와 같은 두 결사에 참여한 인물로 주목할 대상자를 거론하겠다. 이는 결사의 위상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우선 만일참선결사회는 종주인 백용성을 비롯하여 주된 참가자는 당시 중견 수좌들이었다. 이들은 해방 이후에 조계종단 중정, 선원 및 사찰의 지도자를 역임하였다. 중정으로 활동한 인물은 석우(동화사), 동산(범어사), 고암(해인사) 등 3명이다. 조실격인 인물은 운봉(묘관음사),<sup>31)</sup> 혜암(수덕사), 인곡(해인사),

28) 결사 동참자 숫자는 대략의 정황이다. 결사에 한철, 두철을 산 경우도 있고 도중에 자진 이탈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은 봉암사 결사에서도 유사하다.

29) 김광식, 「이청담과 불교정화운동」,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_\_\_\_\_, 「보문선사의 삶과 수행자의 정체성」, 『문학사학철학』 46·47, 2016.

30) 비구니들은 봉암사의 산내 암자인 백련암에 머물면서, 봉암사를 오고 가면서 수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묘엄(봉녕사)이다. 묘엄·김용환, 『響聲』, 봉녕사승가대학, 2008, pp.155-182.

설봉(범어사), 강고봉(범어사), 고송(파계사) 등 6명이다. 이제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인물을 살핀다. 종정을 역임한 인물은 성철(해인사), 청담(도선사), 혜암(해인사), 법전(해인사)이고,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자운(해인사), 월산(불국사), 성수(통도사), 지관(해인사), 의현(동화사) 등이다. 종정 4명, 총무원장 5명이 배출되었다. 두 결사에서 불교의 인재,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 4. 무엇을 : 수행

두 결사에서 실제로 진행된 수행 및 개혁의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만일참선결사회에서의 수행을 다룬다. 그런데 결사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전하는 것이 부재하여 단정하여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거시적으로 보건대 2년간은 기본적인 참선수행은 구현되었을 것이다. 초창기인 망월사 시절에는 오후불식, 동구불출, 평시묵언은 지켜졌다는 기록이 있다.<sup>32)</sup> 그러나 내원암으로 이전한 후에는 결사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나태한 수행을 하였다는 백용성의 회고를<sup>33)</sup> 보면 후반기 내원암 시절의 수행은 점차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갔다. 이런 결사 분위기의 나태와 백용성의 불만은 퇴진의 요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봉암사 결사에서의 수행은 어떠하였을까? 필자는 2년간 규약이 지켜졌다고 이해한다. 이는 규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수좌들만 살았고, 성철이 대중을 엄격하게 진두지휘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성철의 회고를 제시한다.

31) 『운봉선사 범어』, 향곡선사문도회, 1989, p.36, p.188에는 운봉이 망월사에서 입승 소임으로 한 철을 머물렀고, 백용성과 법거량을 하였다고 나온다.

32) 윤고암, 「운수생애」, 『자비보살의 길』, 불교영상회보사, 1990, p.377.

『백용성대종사 총서』 권7, 대각회, 2017, p.619.

33)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7)」, 『백용성대종사 총서』, 권8, pp.266-267.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sup>34)</sup>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남은 것이 좀 있는데, 남고 안 남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펴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우리가 살면서 부처님법 그대로 한다고 하면 너무 외람된 소리지만, 부처님 법에 가깝게는 살아야 안되겠나 그것이었습니다. <sup>35)</sup>

이처럼 성철의 회고대로 교법(율장)에 어긋난 관행과 제도를 바꾸었다. 이 정황은 당시 대중이었던 해명과 의현의 어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 이제 백장청규를 놓고 우리 규칙을 전부 바꾸자 이거야. 생활 방식을 전부 다 바꾸자.<sup>36)</sup>

문 : 자운스님과 성철스님 간에 하였다는 계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답 : 저는 성철스님을 시봉하였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간의 대화는 늘 계율이나 율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철스님께서서는 우리나라 불교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려면 그 바탕이 율장(律藏)이다, 계율정신을 회복해야만 한국불교를 중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율분야는 율장에 가장 밝으신 자운노스님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어른의 주된 대화는 계율이었습니다.<sup>37)</sup>

위의 내용에서 나온 생활 방식을 다 바꾸자고 한 것, 그리고 율장을 초점으로 한 대화를 하였다는 것에서 개혁의 근본성, 결사의 계율성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시 생활과 수행의 특성을 간명하게 전하고 있는 법전의 회고를 들어 보자.

34)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집, 해인강원, 1995, p.118.

35) 위의 「1947년 봉암사 결사」, p.127.

36) 「해명스님」, 『종단사 연구 인터뷰 녹취록』, 조계종 불학연구소, 2007, p.70.

37) 김광식, 『자운대율사』, 자운문도회, 2017, p.116.

봉암사의 생활은 그 전에는 전혀 해보지 않은 판이하게 다른 생활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선종사(禪宗史)에만 있는 일로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이 들것입니다. 그때 노장님(필자 주, 성철)께서 공부하는 제자들 다루는 것도 알아서 존다든가 방일하는 태도가 보이면 지나가도 소리를 지르고 그렇지 않으면 몽둥이로 내리치셨지요.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하니까 도저히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위환경이 화두일념 안하면 배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 환경을 배겨나지 못하면 다 가버렸어요. 밭메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동냥하고, 공부하고 …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살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 그리 한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sup>38)</sup>

이렇게 봉암사 생활과 수행은 규약·율장에 의거한 치열한 삶이었다. 결사를 이끌었던 중건 수좌인 성철(36~38세)은 대중들의 공부를 위해서 가혹한 정책을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봉암사에서 2년간 수행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본다.

## 5. 어떻게 : 추진 방법

두 결사의 추진 방법은 결사에서 정한 규칙, 규약대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뚜렷한 방법은 없다. 규칙과 규약을 지키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집단적인 결사이었기에 지도자의 문제도 고려될 수 있다.

만일참선결사회가 망월사에서는 규칙이 준수되었지만, 내원암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일차적으로는 결사회원인 일부 수좌들의 부적절한 행동(규칙 미이행 등)이 노정되었기에 결사회는 정상 운영이 안 되었다. 나아가서 이차적으로는 백용성이 참선결사회에 주력하지 못하였던 현실을 거론할 수 있다. 그는 그 시점에서 너무 많은 불사를 추진하였다. 즉 『화엄경』 번역

38) 「법전스님을 찾아서」, 『고경』 3호, 불기 2540년 가을호, p.20.

(1926~27),<sup>39)</sup> 식민지 불교와 대결한 대처식육 반대의 건백서 제출(1926),<sup>40)</sup> 화과원에서 선농불교 추진(1927),<sup>41)</sup> 대각교 출범(1927)<sup>42)</sup> 등이 그것이었다. 종주인 그가 내원암에 상주하면서 전력을 기울여도 어려운 결사회는 그의 다양한 불사에서 나온 행보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백용성의 다양한 불사에서 노정된 복잡성과 노년(62~64세) 문제는 결사의 추동력을 약하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정황을 추론할 수 있는 용성의 편지를 제시한다.

生(필자 주, 용성)은 금년에 선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고 다시 加算하여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북간도 사업과 함북 나남 사업과 경성 가옥 유지 등에도 맨손으로 心力을 다하는 가운데 화엄경 불사를 하니 어느 때에 의욕과 기력이 설 곳 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구나 선원 수좌는 한 사람도 합당한 이가 없으니 시절 탓인가 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불법이 스스로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주지의 말은 본산 분배금과 각 소용금은 날마다 독촉이 오고 客의 양식은 다른 절보다 몇 배나 더 들어서 하루속히 사면하겠다며 절대로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약속대로 본인은 책임을 다하였으니 선원을 계속하도록 하였는데 주지는 누구를 내든지 선원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선원 시절을 시작한 뒤 만여 원을 소비하였습니다만 주지는 절대로 않겠다고 하니 사중에서 알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내년에는 수좌의 양식만 공급하고 재단의 印條 일체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은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이운데 삼년간 동구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든지 오후에 먹지 않을 것 등 온갖 규칙을 모두 스스로 파괴하고 나의 지휘는

39) 한보광, 「백용성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 『대각사상』 18, 2012, p.88. 내원암으로 삼장역회도 이전시켰고, 『화엄경』을 번역하였다. 내원암 시절의 소임자에는 역경 담당자도 있었다.

40)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과 백용성의 건백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1997.

41) 김광식, 「화과원의 역사성과 정체성」, 『백용성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7.

42)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 3, 2000, p.85.

털끝만큼도 따르지 않으니 나의 信心도 또한 게으르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늘그막에 기력이 점점 없어져서 심신도 모두 피곤하기만 하니 이는 나의 죄보로 불법 멸망 시대에 태어난 것이외다.

이렇게 불법에 기진맥진하여 있는데다 서울의 모든 객승들은 이런 사정은 돌보지 않고 모여들어 먹어대니 스스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중에 각 처에 오는 편지는 거의가 각종 청구서들 뿐이라 참으로 佛之一字가 나에게서는 커다란 苦處가 되었습니다. 趙州가 이르기를 불지일자를 내 즐겨 듣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이야말로 진실로 참말이 아닌가 합니다.

7월 13일 백상규 올림<sup>43)</sup>

위의 편지에서 용성의 불사 정황, 심정, 섭섭함, 나약함, 수좌들의 규칙 위반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용성은 실망하였거니와 이런 요인의 중첩은 결사회의 자진 해체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봉암사 결사에서는 결사 기획자, 주장자인 성철이 상주하면서 대중들을 철저히 지도하였다. 그리고 규약에 정한 내용의 대부분은 실천되었다. 아래는 봉암사에서 실천된 개혁의 내용이다.

- 참선 : 시행
- 포살 : 시행
- 보살계 : 시행
- 예불(조석, 사시) : 대중 참가
- 108배 : 참회 시행
- 노동 : 대중, 균일하게 시행
- 신도가 승려에게 공경 : 삼배 시행
- 평등 공양 : 승려들에게 평등하게 분배
- 천도재 : 『금강경』, 『반야심경』의 轉經(독송)
- 신중단 의식 : 폐지
- 능엄주, 이산혜연 선사 발원문 : 대중 전체가 암송
- 칠성탱화, 산신탱화 : 제거

43)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7)」, 『백용성대중사 총서』, 권8, pp.266-267.

- 승려가 기복적으로 불공하는 관행, 축원 : 금지
- 목발우 금지 : 철·와 발우로 전환
- 비단으로 된 가사, 장삼 금지 : 괴색 가사, 보조 장삼
- 공양주, 부목 추방 : 승려, 직접 시행
- 육환장, 샷갓 : 착용
- 아침 : 죽
- 천배 절 : 수행차원으로 시행

이와 같이 봉암사에서는 당시의 관행을 과감히 깨뜨리는 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시도의 근거는 부처님의 법과 율이었고, 모델은 중국 총림이었다. 즉 봉암사에서는 규약에 정한대로, 기획자인 성철의 제안대로 불법대로 사는 혁신을 추진했다.

## 6. 왜 : 배경, 목적

만일참선결사회와 봉암사 결사가 기획, 추진되었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살핀다. 우선 참선결사회가 추진된 것의 배경,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결사회에는 간화선을 활성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구현되었다. 결사회의 목적을 活句參禪으로 見性成佛하여 廣度衆生함을 목적으로 표방함에서 분명하게 나온다. 흥미한 간화선, 중생이 부재한 간화선, 선지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간화선을 배경하고 정통선 수행을 복원하겠다는 바램이다.

둘째, 결사회에는 계율수호 의식이 개입되었다. 이를 백용성은 禪律兼行이라고 하였다. 참선과 계율을 동시에 실천하려는 의식이었다.

셋째, 수행풍토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개입되었다. 1920년대 중반은 계율 파괴, 대처식육, 음주식육이 無妨般若라는 흐름이 성장하였다. 이에 백용성은 비정상적인 수행풍토에 대한 척결 의지를 피력했다.

넷째,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식민지 불교의 비판, 극복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래서 백용성은 대처승의 보편화, 결혼한 승려들의 주지 취임, 사찰의 혼탁화 흐름을 저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한편 봉암사 결사의 목적은 불조교법에 근거한 승려, 사찰, 승단, 교단의 생활을 만들려는 것에 있었다. 즉 기존 제도, 관행을 개혁하여 근본적인 불교로 돌아가려는 근본주의적, 계율이 구현되는 생활로의 노선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라는 성철의 어록에 나오듯이, 부처님 법이 당시 불교계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현실을 고치려는 의식이다. 일제시대와 해방공간의 불교계에서 부처님 법대로가 구현되지 않았기에 결사를 기획하고, 결사에 동참한 것이다. 이는 결사의 기획자이면서 핵심 주역인 성철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下記의 共主規約을 草案하여 大衆에게 提示 詳細한 說明을 가하였다. 古佛古祖의 遺勅을 完全하게 實行한다 함은 越分過度한 너무나 외람된 말이지만 敎團의 現況은 佛祖 敎法이 全然 泯滅되었으니 多少間이나마 復舊시켜 보자는 것이 主眼이었다. 『共主規約』 그리고 敎法 復舊의 原則하에 나의 隨時 提案이 있을 것인바, 그 提案에 汚點이 發見되지 않는 한 大衆은 무조건 追從 할 것을 再三 다짐하고 全般의 實踐에 옮기게 되었다.<sup>44)</sup>

봉암사에 들어가게 된 근본 동기는, 죽은 청담스님하고 자운스님하고 또 죽은 우봉스님하고, 그리고 내하고 넷인데, 우리가 어떻게 근본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임시적인 이익 관계를 떠나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 이것이 願이었습시다. 즉 근본 목표다 이말입니다.<sup>45)</sup>

44) 천제스님, 「1947년 가을」, 『示月錄』, 뜨란, 2022, pp.73-77.

45) 위의 『수다라』와 같음.

요컨대 불법대로 살기를 희망하는 강력한 개혁 의지이다. 둘째는 부처님 법, 즉 불조교법이 지켜지지 않은 현실을 개혁할 승려들이 부재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다. 불교계의 모순(불조 교법, 파괴)을 인식하여, 개혁할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해방공간 불교에서 선학원 수좌들은 모범총림을 불조청규에 의하여 건설, 중앙선원 자치, 지방선원 자치제 등을 교단에 건의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sup>46)</sup> 더욱이 교단이 1946년 10월에 출범시킨 가야총림도 봉암사 기획자들은 만족하지 않았다.<sup>47)</sup> 그리고 백양사에서 고불총림이<sup>48)</sup> 출범하였으나 봉암사 결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즉 고불총림은 현실(대처승)을 일부 인정하는 점진적 노선이었기에, 불조의 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봉암사 결사와는 이질적이었다. 이렇듯이 해방공간 불교계에서 부처님 법(불조 교법)이 퇴색되는 것을 개혁하려고 한 수좌들의 결단이 봉암사 결사를 출범케 하였다.

위와 같이 만일참선결사회는 일제하 불교 현실 즉 전통불교 후퇴 및 일본불교의 급증이라는 위급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禪律結社이었다. 그러나 봉암사 결사는 해방공간의 불교가 불조교법이 무너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戒律結社이었다. 그러면 본 장에서 정리한 육하원칙에 따른 두 결사의 비교를 표로 제시하겠다.

46) 김광식, 「불교혁신총연맹의 결성과 이념」,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pp.293-294.

47) 성철은 가야총림에 참가도 안 했다. 그러나 청담은 교단에서 추진한 총림에 동참은 해보겠다고면서 1947년 여름부터 1949년 2월까지의 해인사 가야총림에서 정진하였다. 그러나 청담은 1949년 3월경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48) 고불총림은 1947년 2월에 본격화 되었다. 고불총림에 대한 개요와 성격은 김광식,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참고.

<표 4> 결사의 정체성 비교

	만일참선결사회	봉암사 결사
언제	1925~1927년(2년)	1947~1950년(2년 반)
어디에서	망월사, 통도사 내원암 - 지방, 오지	봉암사 - 지방, 오지
누가	수행자 50여 명 - 수좌 30명 외호 20여 명 종정 3명 조실 6명	수행자 40여명 - 수좌 30명 비구니 10명 종정 4명 총무원장 5명
무엇을	禪律 겸행 전통주의	계율불교 근본주의
어떻게	청규 실천 - 중도 퇴진	규약 실천 - 철저한 진행
왜	전통불교 회복 일본불교 배척	불조교법 퇴색, 복구 - 불법, 생활화
계승	미완성 결사 성철·자운에게 계승 봉암사결사, 이념 제공 종단사, 미반영	성공한 결사  정화운동, 조계종단사에 정립

위의 표에서 나오듯이 두 결사는 同異點을 갖고 있었다. 같은 점은 결사 기간(3년), 오지라는 장소, 수행자의 숫자, 배출한 인제는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다른 점은 수행 방법과 정체성에서 선율겸행과 계율불교, 전통주의와 근본주의, 전통불교 회복과 불조교법 복구라는 것에서 이질적이었다.

여기에서 필자가 봉암사 결사를 ‘계율불교’라고 내세웠지만 선수행, 선농불교적인 것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철의 어록(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에 나오듯이 결사의 주안점은 계율불교의 실천이었다.<sup>49)</sup> 결사의 완수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이질적이었다. 만일참선결

49)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봉암사 결사는 선수행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하였

사회는 중도 퇴진한 미완성의 결사이었지만, 봉암사 결사는 빨치산 출몰로 퇴진하였지만 성공한 결사이었다. 또한 계승의 측면에서도 결사회는 승단, 종단사에서 계승되지 못하였다.<sup>50)</sup> 그러나 봉암사 결사는 불교정화운동과 조계종사에 계승되었다. 다만 성철의 개인적 차원에서 계승되어, 봉암사 결사를 성사시킨 역사적 의의는 갖는다.

그렇다면 만일참선결사회는 봉암사 결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결사회가 종료된 이후 8년 후에 봉암사 결사의 기획자인 성철이 1936년에 해인사에서 출가를 하였다.<sup>51)</sup> 또한 백용성이 당신의 손상좌인 성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연고<sup>52)</sup> 등을 고려할 때 필자는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과 증언이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념적(결사 추진, 수행정신, 깨달음 추구, 계율 정신 등) 측면에서는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철은 백용성 - 동산 - 성철로 이어진 법맥을 강렬하게 인식하였다.<sup>53)</sup> 이런 전제에서 백용성 선사상의 정수를 전하는 『수심정로』와 성철 선사상을 전하는 『선문정로』의 비교 연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백용성의 손상좌로 출가한 성철은 일제 말기부터 개혁을 구상하였고 해방공간에서 결사를 기획하였기에 20년 전에 출범한 만일참선결사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을 것이다. 당신의 노스님인 용성이 추진하였기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가 1946년에 출범한 해인사 총림에 불만을 품고 머문 수행처가 통도사 내

---

다. 그런데 당시는 봉암사 결사의 개요에만 유의하였기에 정체성, 성격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김호성은 봉암사결사도 ‘선율병운’이라고 보았으나, 필자는 선수행의 측면도 있었지만 계율의 복원, 실천에 중점을 두었기에 정체성으로는 계율을 강조하는 계율결사, 근본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50) 필자는 만일참선결사회의 계승 인식에 관련된 종단사, 교단사 자료를 접하지 못하였다. 다만 결사 참가자의 회고, 비석, 행장에 일부 내용이 나온다.

51) 성철의 도첩과 승적첩(해인사)에는 1936년 3월에 득도, 은사는 ‘河龍峰’으로 나온다. 용봉은 용성의 상수제자인 동산의 법명이었다.

52) 원택스님 엮음, 『성철스님 행장』, 미디어글씨, 2012, p.44,

53) 김광식, 「성철의 삶과 범어사」, 『정토학연구』 38, 2022, p.199.

원암이었다.

즉 성철은 결사회가 추진된 내원암에서 백용성이 추진한 결사회의 대한 개요, 성격, 과제 등에 대해 고민하였다고 본다. 당시 내원암에는 결사의 핵심 주역인 우봉과 보문이 정진을 하였다. 그래서 성철은 결사의 방향에 대해 청담, 자운, 우봉, 보문과 상의하였을 것으로 본다.<sup>54)</sup>

또한 혜충이 전한 자운의 발언 즉, 망월사에서 백용성에게 전법을 받은 자운의 ‘우리도 망월사에서처럼 해보자’는 발언도 고려되어야 한다.<sup>55)</sup> 최근 필자는 혜충을 인터뷰하였는데, 혜충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였다.

제가 보국사(서울, 정릉) 주지를 하면서 동국대를 다니던 시절(1970년대 초)에 봉암사결사는 용성스님의 결사를 이은 것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자운스님에게 분명히 들었어요. 용성스님의 뜻을 받들어 봉암사에서 공주규약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불교중흥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봉암사 결사는 만일참선결사회를 이은 것이라는 것은 봉암사 결사의 대중이었던 도우스님, 보경스님, 보안스님도 그리 말하는 것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sup>56)</sup>

이와 같은 자운의 계승의식, 그리고 결사대중의 발언도 주목된다. 자운은 1925~6년 경, 망월사 결사 현장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1938

54) 김광식, 「보문선사의 삶과 수행자의 정체성」, 『문학사학철학』 46·47, 2016, pp.41-43. 성철은 우봉은 사찰운영의 책임, 보문은 장경 수호에 대한 약속하였다고 회고하였는데 필자는 그 장소를 내원암으로 추정한다. 위의 『시월록』, p.75. 우봉과 보문은 결사에 성철과 함께 최초로 들어간 대상자이다. 성철은 「1947년 봉암사결사」의 회고에서 결사 근본 방침을 정한 인물로 청담, 우봉, 자운과 자신을 포함한 네 명이라고 증언했다. 우봉은 금강산 불교 출신으로 석우(동화사) 계열의 수좌이다. 그는 당시 통도사 내원암 주지이었다는 결사 초기의 원주를 본 도우의 증언이 있다. 『고경』 6, 1997, p.33.

55) 김택근, 『용성평전』, 모과나무, 2019, p.356.

56) 2023년 4월 27일, 혜충스님(부산 감로사)과 전화 인터뷰.

년 9월, 망월사에서 용성에게 법 인가를 받고, 입실 건당을 하였다.<sup>57)</sup> 때문에 자운은 용성에 대한 계승의식 하에서 만일참선결사회를 주목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그리고 자운의 상좌인 지관은<sup>58)</sup> 봉암사 결사의 규약 18개 조항 가운데 12개가 계율의 내용이라고 보면서 봉암사 결사(공주주약)에서의 자운의 역할을 2007년에 은근히 강조하였다.<sup>59)</sup>

또한 『용성평전』을 지은 김택근은 청담도 백용성에 대한 외경심이 있었다고 보면서, 봉암사결사의 주역들은 용성과 인연이 깊었다고 주장한다.<sup>60)</sup> 여기에서 필자는 결사회의 주의사항이 18개이었고, 공주규약의 내용도 18개이었음을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추론한다.<sup>61)</sup>

여기에서 덕산(원두)의 견해를 제시한다. 덕산은 백용성과 성철은 전통적인 가풍에 철저히하면서도 계율에 충실한 대중생활을 지향하였다고 보았다.<sup>62)</sup> 그리고 성철이 봉암사에서 행한 제반 규약 및 실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불법의 근본에 철저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서는 “석존의 법·율, 조사들의 어록, 청규에 입각한 용성노사의 불교관과 승단관을 철저히 구현하는 한편 일상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sup>63)</sup>

즉 덕산은 성철은 백용성의 불교관과 승단관을 계승하였지만, 일상 생활에서 실천한 측면은 차별적인 내용으로 보았다. 필자는 이런 계승에 대해 광의의 영향은 미쳤을 가능성은 수긍한다. 다만 백용성은 식민

57) 김광식, 『자운대율사』, 자운문도회, 2017, p.529, 연보.

58) 지관은 해인사 강주, 주지, 동국대 총장, 조계종단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59) 2007년 BTN에서 제작한 영상 작품, 「인연 그리고 법연, 21회 ; 승가의 사표 청정율사 자운스님」에서의 지관 발언. 목정배, 「봉암사결사와 자운 성운대율사」,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조출판사, 2008 참고.

60) 위의 김택근 책, pp.357-358.

61) 추후 이에 대한 보충 연구가 요청된다.

62) 덕산, 「용성문도와 불교정화 이념」,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649.

63) 위와 같음.

지하에서 민족불교를 지켜야 하는 전통적인 근본주의이었지만, 성철은 새로운 불교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나온 개혁지향적인 계율주의이었기에 이질성을 노정하였다. 이런 이질성은 그들이 처한 시공간이 일제하와 해방공간이라는 차별성에 나왔다. 백용성은 일본불교의 배척을 통한 전통불교의 회복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성철은 일제(일본불교)가 물러갔기에 일본불교와의 대결이 아닌, 식민지 불교의 후유증(불법·불조 유치·칭규 정신의 파괴) 극복에 나서야 했다. 그래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으로 근본불교의 복구에 치열하게 매진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성철의 불교관이 근본주의, 개혁주의이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어

맺는말은 전장에서 살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추후 더욱 연구할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필자가 정리한 것은 첫째, 만일참선결사회의 규칙과 봉암사 결사의 규약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과감하게 피력하건대 결사회는 대승불교, 선율겸행, 참선불교, 율장 강조, 전통주의, 화합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봉암사 결사는 근본불교, 계율결사, 선농불교, 생활 및 의례의 개혁, 혁명적인 성격이었다. 둘째는 두 결사의 실제 상황을 6하원칙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결사 기간, 장소, 수행자의 숫자, 배출한 인제는 유사했다. 수행 방법과 정체성에서는 선율겸행과 계율불교, 전통주의와 근본주의, 전통불교 회복과 불조교법 복구라고 볼 수 있어 이질적이었다. 결사의 성사라는 측면에서 만일참선결사회는 중도 퇴진한 미완성의 결사이었지만, 봉암사 결사는 성공한 결사이었다. 계승의 측면에서도 결사회는 교단사적으로는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봉암사 결사는 불교정

화운동, 조계종단사에 계승되었다고 인식했다.

추후 연구할 초점을 제시하겠다. 첫째는 근현대 결사운동사에서의 만일참선결사회에 대한 위상, 영향, 의의 등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sup>64)</sup> 둘째, 본 고찰에서 다루지 못한 백용성과 성철의 중간 교량자인 동산(범어사 조실)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동산은 조계종단의 종정으로 1950년대 불교정화운동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였다. 이와 같은 동산은 백용성의 불교관, 정화관, 결사운동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계승되었는가를 분석함에 있어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리고 성철의 불교정화관, 정화노선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이 글이 이 방면의 동학, 후학들의 연구에 자극이 되길 바란다.

---

64) 김호성은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 씨아이알, 2016에서 만일참선결사회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 참고문헌

-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 3, 2000.
- \_\_\_\_\_,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 \_\_\_\_\_,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 \_\_\_\_\_, 「봉암사 결사의 재조명」,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 \_\_\_\_\_,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각사상』 16, 2011.
- \_\_\_\_\_, 「보문선사의 삶과 수행자의 정체성」, 『문학사학철학』 46 · 47호, 2016.
- \_\_\_\_\_, 「백용성 만일참선결사회의 전개와 성격」, 『대각사상』 27, 2017.
- \_\_\_\_\_, 『백용성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7.
- \_\_\_\_\_, 『자운대율사』, 자운문도회, 2017.
- \_\_\_\_\_, 「성철의 꿈과 김룡사 운달산 법회(1966)」, 『대각사상』 33, 2020.
- \_\_\_\_\_, 「성철의 삶과 범어사」, 『정토학연구』 38, 2022.
- \_\_\_\_\_, 『선학원 연구』, 중도기획, 2023.
- \_\_\_\_\_, 『동산 연구』, 중도기획, 2023.
- 김종인, 「1960년대 한국불교와 성철의 활동 ; 봉암사결사와 해인총림」, 『백련불교논집』 16, 2006.
- 김호성, 「결사의 근대적 전개양상」, 『보조사상』 8, 1995.
- \_\_\_\_\_, 「봉암사 결사의 윤리적 성격과 그 정신」, 『봉암사결사와 한국 현대 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 \_\_\_\_\_,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 씨아이알, 2016.
- 덕 산, 「용성문도와 불교정화 이념」,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 마 성, 「백용성의 승단정화 이념과 활동」,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 묘엄·김용환, 『響聲』, 봉녕사승가대학, 2008.
- 원택스님 위음, 『성철스님 행장』, 미디어글씨, 2012.
- 신규탁, 「성철선사의 불교관에 나타난 개혁적 요소 고찰」, 『한국불교학』 49,

2007.

해인사,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집, 1995.

송현주, 「봉암사결사 의례적 차원 ; 특징과 의의」,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 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조계종 불학연구소, 『봉암사결사와 한국 현대불교』, 조계종출판사, 2008.

한보광, 「백용성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 『대각사상』 18, 2012.

학 담, 「용성진중조사의 원돈율사상과 선율겸행의 선풍」, 『대각사상』 10, 2007.

천제스님, 『示月錄』, 뜨란, 2022.

## Abstract

Comparison between the Manilchamseon Society and the Bongamsa Society

Kim, Gwang-sik  
(Dongguk Univ, professor)

This paper compares the Buddhist monk Baek Yong-seong, who has a high reputation as a high priest in modern Korean Buddhism, Manilchamseon associations(만일참선결사회) and the Buddhist community of Bongamsa(봉암사 결사), which has been highlighted as a distinct history in Korean modern Buddhist history. it is writing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association of Bongamsa Temple, but on the other hand, research on the society of Ikwoncham Seongyeol has been sluggish. Therefore, I conducted this study to explor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identity, and succession of the Manilchamseon associations.

Based on this premise, I paid attention to the study with the following focus. First, I tried to compare the ideology shown in the rules of the Mangwolsa society and the rules of the Mangwolsa society. To this e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ssociation were first analyzed. After that, Lee compared the ideology of the two associations. Second, we tried to carry out this comparison based on the 6-ha principle. In fact, the two societies were analyzed with the six-ha principle, which is the concept of grasping events. After that, the content of each association was analyzed as an identity concept. Third, after this analysis, I tried to deal with the issue of succession and the influence of the lililchamseon society on the Bongamsa society. I introduced Baek Yong-seong and Seong-wol's relationship and Zaun's testimony as clues to him. This point requires more

in-depth research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by the author who has performed in this way will be helpful for research on modern and contemporary associations, high monks, Bongamsa associations, Manilchamseon associations, Baek Yongseong, Seongcheol, and Jaun.

Key words

anifest Chamseon Association, Bongamsa Association, Mangwolsa Temple, Bongamsa Temple, Tongdosa Naewonam Temple, Baekyongseong, Seongcheol, Jaun

논문투고일 : '23. 9. 19. 심사완료일 : '23. 11. 22. 게재확정일 : '23. 11. 22.